길 가던 분들 아무 때나 들러 "그림 바뀌었네요?"

■ 아름다운교회 김준 목사의 '골목길 문화목회' -정공주 작가 전시회

교회 1층 갤러리로 꾸며 2~3개월 단위 전시회
정공주 작가의 작품 20여 점 전시 주민들 '호응'

▲아름다운 교회 갤러리에서 방문자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르쪽부터 김준 목사와 사모 그리고 정공주 작가.

하루는 교회 앞집 페인트공이 지나다가 묻는다.

"목사님 그림 바뀌었던데요?"

교회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을 색깔 노동자답게 눈여겨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월산동 골목길에 자리한 우리 교회는 1층에 미술 갤러리를 열었다. 25년 봄부터 기독교 미술 화가들이 2-3개월 단위로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기독교 나염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싶어서다.

목수 예수님도 미적인 감각이 남달라서 사람들이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그 솜씨에 감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나님을 전하시곤 하였을 것이다.

우리 교회 갤러리에도 마을 식구들이 제법 오신다.

어르신 일자리를 하시는 녹색 조끼 할머니들이 부담없이 들어와, 봉지 커피를 드시면서 그림을 보고 가신다.

통장님도 골목길이 환해졌다며 교회 문턱이 낮아진 것을 좋아하는 눈치다.

언젠가는 이분들을 위해 느긋한 미술학교도 열어볼 생각이다.

교우들도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작품을 즐긴다.

교회 공간 자체가 낯선 이들에게 그림의 품은 넓고 친절하다.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들 듯, 복음이 색조 화장처럼 우리네 삶이라는 건조한 피부에 맵시좋게 묻혀지면 좋겠다.

우리 아름다운교회가 남구 금화로 393번길, 좁고 긴 골목길을 복음과 예술로 밝히며 그림을 좋아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색채를 조분조분 나누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 /김준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생명수
oil on canvas 2024
91.0*116.8 cm
나의 기저에는 그림자를 벗고 영원한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이불산으로 굽이굽이 생명수가 흘러 나의 영혼이 목마르지도 슬프지도 않는 감격에 흠뻑 적셔지기를 나는 사모합니다.

▲인왕산
oil on canvas 2025
160.2*112.1 cm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청록색은 고요한 침묵의 사유를 상징합니다. 삶의 무게와 같이 묵직한 청록색이지만 때론 이불속의 솜털처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인생이라는 장막 안에서 나는 오늘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인왕제색도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1층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

▲천지
oil on canvas 2025
72.7*60.6 cm
나와 우리의 관심밖에 있는, 세상에 유일한 감옥에 갇혀있는 북한의 지체에게 자유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바라며...

▲▼정공주 작가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대역전

행복힐링캠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1박 2일 행복힐링캠프에 참석하시면

1.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3.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의 깊은 임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2026년 6월 2일(화) 오후2시~ 3일(수) 오후6시

장 소 | 광주 열린교회 (동구 중앙로 348)
주 관 | 광주 예수마을셀교회
강 사 | 박영 목사(수원 예수마을셀교회)
회 비 | 5만원(5명 단체 등록시 개인당 4만원) 식사&교재 포함
계 좌 | 하나은행 (443- 910305 -59007) 한성욱
문 의 | 010-9632-4200
*회비는 등록자명으로 입금하신 후 문자주시면 정식 등록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캠프 홍보영상

이 아름다운 천국잔치인 행복힐링캠프에
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